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총회

“국가 전략산업 지정 성과·인쇄진흥재단 설립 추진” 총회 첫 문화부장관표창·협회장표창 및 감사패 수여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2월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호텔PJ에서 허철종·민재기 인협 전회장, 홍우동 인협 명예회장, 김직승·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회장,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 남원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인쇄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사진 | 안세민 기자 heroic127@print.or.kr



이날 총회에서 김남수 인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협회는 인쇄업계 발전의 토대가 될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데 매진했다. 그 결과 국고와 지방비 등 792억 원을 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이 모두가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신 전임 단체장님들과 수많은 업계 선배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2일자로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의 첫 번째 목표였던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받게 됐다. 인쇄업이 전략산업

으로 지정됨으로써 인쇄업계는 연간 800억 원 한도 내에서 시설과 운전 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우리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반덕환 세진맥피아 대표, 박장선 (주)투데이아트 대표이사, 안기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에 대한 문화부장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는데, 정기총회에서 문화부장관 표창이 수여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아울러 맡은 업무에서 모범을 보인 임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협회장 표창(23명)과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최대광 (주)동양인크 대표이사, 이운경 대일코포레이션 대표 등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이뤄졌다. 또한 2012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잉여금처분(안)을 비롯해 2013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등은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한편, 감사의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신병태(대산문화인쇄 대표) 현임 감사를 유임하고, 조좌영 케이에프앤씨(주) 대표이사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국제 경쟁력 강화·5개년 계획 차질 없이 수행

이날 행사에서 인협은 2012년 사업보고를 통해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발표 ▲인쇄수출지원센터 운영 ▲국제인쇄포럼 ‘세계 인쇄산업의 친환경인쇄 현황과 대응 전략’ 개최 ▲해의시장 개척단 파견 ▲2012 국제인쇄산업전시회 개최 ▲2012 독일 뒤셀도르프국제인쇄기술전시회 한국인쇄관 조성 ▲2012 북엑스포아메리카 도서전 한국인쇄관 조성 ▲제19회 중국북경도서전 한국인쇄관 조성 ▶2012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인쇄관 조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 및 인쇄문화 순회 전시 ▲인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친환경 인쇄잉크 개발 등의 주요사업을 비롯해 조직강화 사업, 미디어 발간, 홍보 업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친환경·품질표준화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2013년도 운영목표를 상정하고, 10대 운영방침도 발표했다. 10대 운영방침은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가칭 인쇄진흥재단 설립을 추

진 ▲국고지원을 통한 인쇄수출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시장의 다변화 ▲국내외 유명 전시회에 한국인쇄관을 조성해 찬란했던 인쇄문화와 우수인쇄물을 홍보 ▲인쇄품질 제고를 위한 국가 R&D사업에 적극 참여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고인쇄기자재 수집 추진 ▲인쇄전공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와 산학협력 차원의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전문 인력 교육사업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세계인쇄회의의 국내 유치 추진 ▲프린팅 코리아의 취재와 편집을 다양화하고, 협회 홍보 강화 ▲사무국 업무를 전문화하고, 대 회원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다.



1. 회원들을 영접하고 있는 인협 회장단
2. 인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귀빈
3. 이번에 선임된 신병태(좌), 조좌영(우) 신임 감사

20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자
2022

반덕환 세진맥피아 대표

박장선 ㈜투데이아트 대표이사

안기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반덕환 세진맥피아 대표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박장선 ㈜투데이아트 대표이사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안기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자들 기념사진



대한인쇄문화협회장 표창 수상자

이방선 서진문화인쇄사

기장

이형범 팩컴AAP(주)

부장

윤상민 길성문화인쇄사

과장

허승무 ㈜일진커뮤니케이션

차장

서진아 ㈜성우에드컴

부장

안진환 ㈜재능인쇄

사원

김희연 학원사

팀장

이경호 ㈜계문사

부장

정연광 다이나폰스크린코리아(주)

차장

한태수 ㈜미래엔

기장

강보연 한국전산흥(주)

사원

김시용 정민문화사

과장

김규철 일진PMS(주)

부장

김영수 ㈜씨마스커뮤니케이션

팀장

노시만 명진사

차장

박노송 케이에프앤씨(주)

팀장

황규동 완산정판사

과장

문형철 화신문화(주)

과장

조철영 벽호

기장

유도성 동성특수인쇄

전무

용돈중 한영문화사

사원

황태남 한국하이델베르크(주)

부장

김동환 ㈜동성사

사원

감사패 수상자



이윤경 대일코포레이션

대표

최대광 ㈜동양잉크

대표이사



2013년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총회 개회사

대한인쇄문화협회 2013년을 설계하는 제65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과 협회장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장학금을 기탁해 인쇄 후진 양성에 기여해 주고 계신 이운경 대일코퍼레이션 사장님과 최대광 동양인크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협회는 인쇄업계 발전의 토대가 될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국고와 지방비 등 792억 원을 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신 전임 단체장님들과 수많은 업계 선배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앞으로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의 중지를 모아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해에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한편, 전국 열두 곳에서 인쇄문화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제인쇄산업전시회와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7일에 개최한 신년인사회는 국회의원 다섯 분과 두 분의 차관이 참석하여 인쇄문화산업의 발전과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듣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쇄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받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만, 드디어 올해 1월 2일자로 인쇄문화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쇄업이 전략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인쇄업계는 연간 800억 원 한도 내에서 시설과 운전 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소위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예산 때문에 목표보다 다소 작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국고 4억5천만 원과 지방비 8천만 원을 지원받고 인쇄산업의 기술 연구자금 8억 원이 확보된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는 5개년 계획에 따른 국고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예산확보에 온 힘을 다하고 인쇄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킬 공공 성격의 '한국인쇄진흥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고 지원을 받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세계인쇄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저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책임 있는 기획과 정부에 대한 인쇄업계의 자존감을 부각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인쇄업계는 더없는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계사년 새해는 새 정부도 출범하는 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인쇄업계에도 밝은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회원님들의 애로가 무엇이고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서 불황탈출의 계기가 되는 계사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상정되는 의안들을 잘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0일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김남수